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포럼

제49회 청소년정책포럼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 일 시 | 2023년 4월 25일(화) 13:30~16:20

| 장 소 | 성북구 평생학습관 대강의실

| 공동주최 |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후원 |  성북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프로그램 안내

사회 : 조일재 (성북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장)

13:30~13:45	축사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승로 (성북구청 구청장) 김연은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세션] 주제발표	
13:45~14:10	발표 1 생애주기적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 필요성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10~14:35	발표 2 성북구 사회적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 조미형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
14:35~14:50	휴식시간
[2세션] 종합토론	
14:50~16:20	좌장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오오쿠사 미노루 (사단법인 씨즈 고립청년지원팀 팀장) 김주희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김형희 (성북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천현진 (성북구가족센터 사무국장) 김경옥 (공간 만들레 대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목 차

축 사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승로 (성북구청 구청장)
김연은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주제발표 1 ————— 1

생애주기적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 필요성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2 ————— 13

성북구 사회적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
조미형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

종합토론 ————— 25

좌장 |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오오쿠사 미노루 (사단법인 씨즈 고립청년지원팀 팀장)
김주희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김형희 (성북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천현진 (성북구가족센터 사무국장)
김경옥 (공간 민들레 대표)

축사

김 현 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오늘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실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을 성북구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해주시고, 빛내주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과 김연은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그리고 발표, 좌장,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기관 전문가 분들과 행사준비로 애쓰신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고립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을 정의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한 걸음씩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전히 조사와 정책추진에 난점들이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성과를 얻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문제의 골은 깊고, 복잡한데, 각각의 정책이 독자적으로 확장되어 온 탓에 많은 정책과 사업들 간에 분절의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연계와 조정을 위한 여러 방편들이 논의되어 왔지만 진전없이 정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틈이 생기고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해법이 될까요? 서비스의 분절성은 디지털 정책이나 사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디지털 전환은 사회서비스의 보완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현대인의 디지털 발자국은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으니 사각지대 발굴은 진일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바오가 말하는 것처럼 디지털화는 사람들 간의 탈소통으로 ‘고립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디지털 전환은 ‘고립된 인간’을 양산하는 동시에 ‘고립된 인간’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는 도구가 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책이나 사업 또는 데이터의 분절 해소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허물어뜨리는(잔혹한) 현상과 일상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공동체성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이 붕괴되어 버린 마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통절합니다. 정책, 사업, 데이터의 통합만으로 붕괴된 마을을 복원되지 않을 겁니다. 분절과 칸막이를 넘어 어떤 해법이 있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축사

이 승 로

성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청장 이승로입니다.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연은 대표 협의체 위원장님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7년 구성된 후 명실공히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민관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위원님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더불어 행복한 성북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분과에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청년의 고립 현상을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아동청소년의 고립 실태라는 주제 연구로 발전시켰고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과 공동포럼 개최라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무엇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북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자리라 더욱 의미가 특별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고립 위기의 성북구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응 및 지원 방안이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성북구도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김 연 은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증가, 1인가구 증가, 중장년층 고독사 문제와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굴과 지원, 사회적 고립청년의 증가, 자살률 증가 등 신사회적인 위험으로 부터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 속에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기에 괴롭힘과 따돌림, 정서적으로 힘들어 했던 경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 부정적인 경험이 지속되면 청년기에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생애주기적 시각을 통해 고립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관심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아동·청소년기 에서부터 시작되며, 사후적 접근보다는 생애주기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번 연구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청과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와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아동·청소년기부터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인식하고, 생애주기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북구는 2021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르면 ‘전 연령대 걸쳐 심화된 사회적 고립’ 이나, ‘정신건강의 어려움’, ‘가족간의 관계 갈등’ 등으로 인해 발생 되는 문제들에 대한 지원을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확대되어서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활발하게 모색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아동청소년분과 위원님들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포럼
제49회 청소년정책포럼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주제발표 1

생애주기적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 필요성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포럼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생애주기적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 필요성*

: 아동·청소년은 어떻게 사회와 단절되어 성장하며 점차 사회로부터 고립되는가?

유 민 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 발표자료는 2021년 10월에 개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에서 발표된 유민상, 신동훈의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 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가?
- 사회적 고립의 원인·과정·결과는 어떠한가?
-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요약: 부정적 경험을 안고 성장하는 개인, 분절적 대응 체계가 만들어내는 사각지대
- 논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생애주기적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 필요성

- 최근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 및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경향
 - 한 개인이 사회로부터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음
 -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개인화되고 고립되는 경향
- 과거에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무연사회(무연고사회)의 측면에서 접근되었으나, 최근에는 청년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 기존 청년 니트(Youth NEETs),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의 연속선상에 있음

사회적 고립이란 무엇인가?

- 혼재되어 사용되는 청년 니트,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고립 개념 특성

• (특징) 현재의 지위(status) 관련 개념
 • (정의) 취업, 훈련, 교육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장점) 측정이 용이
 • (단점) 3개 중 하나의 지위에 속하면 정책 대상이 되지 못함

니트(NEETs)

• (특징) 행동과 동기 관련 개념
 • (정의) 일정기간 동안 외출하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람과 거의 교류하지 않음
 • (장점) 대상 정의 용이
 • (단점) 측정이 어렵고, 용어가 가진 낙인이 있어 정책용어로 사용이 어려움. 특정 행위나 동기에 대한 구체화된 가정을 하는 개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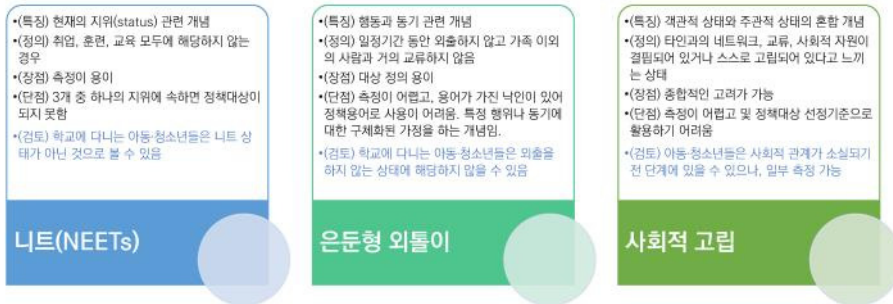
은둔형 외톨이

• (특징)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상태의 혼합 개념
 • (정의) 타인과의 네트워크, 교류, 사회적 자원이 결핍되어 있거나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상태
 • (장점) 종합적인 고려가 가능
 • (단점) 측정이 어렵고 및 정책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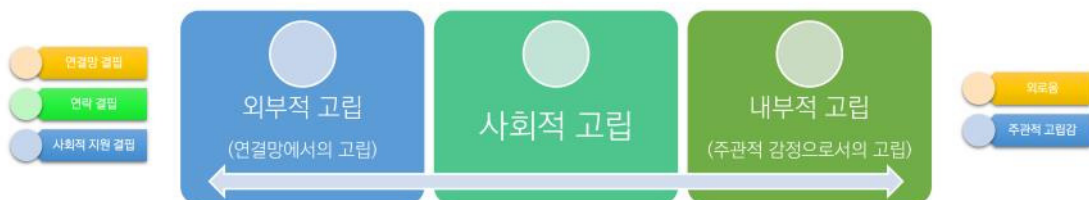
- 닛트의 지위 개념, 은둔형 외톨이의 행동 개념은 학교에 다니고, 집 밖으로 나오는 아동·청소년들의 상태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고립 개념과 측정에는 다른 고려가 필요함.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 사회적 고립 개념(internal, external social isolation)
 - 외부적 고립은 연결망에서의 고립으로 연결망(network), 타인과의 연락(contact),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혹은 호혜적 관계(reciprocity)가 결핍되거나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
 - 내부적 고립은 스스로 외롭다(loneliness)고 느끼거나, 주관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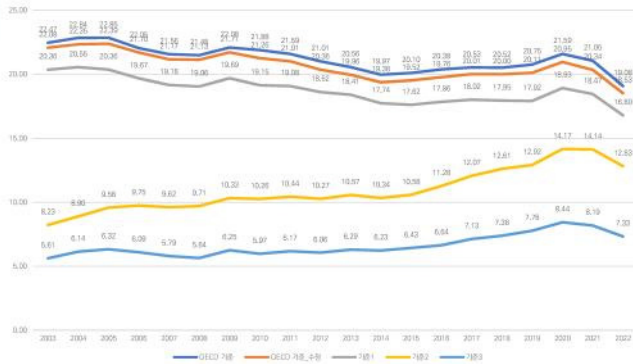
※ 개인이 홀로 느끼는 고독(solitude)은 긍정적인 상태로 구분함



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가?

- 우리나라 니트 청년의 비율 (15~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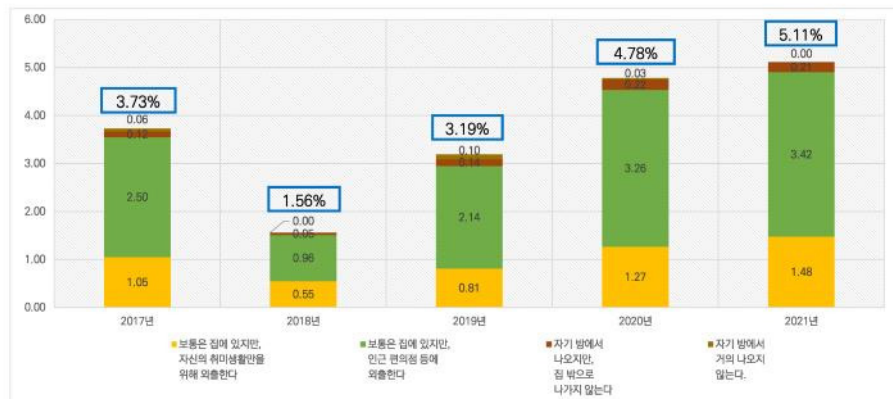
	OECD 기준	OECD 기준 수준	한국의 역치를 반영한 기준		
			기준1	기준2	기준3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	○	○	○	○
비경제활동인구					
장기 교육기관 통학	○	X	X	X	X
입식학원 통학	○	○	X	X	X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	○	X	X	X
육아	○	○	○	X	X
가사	○	○	○	X	X
취업 준비	○	○	○	○	X
진학 준비	○	○	○	○	X
공립대 대기	○	○	○	○	X
당선 대기	○	○	○	○	X
여유용	○	○	○	○	○
기타	○	○	○	○	○



출처: 유민상, 신동준, 변규선, 정지운(2022), 한국형 니트분석 및 노동시장 진입자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가?

- 외출을 하지 않는 청년의 비율 (≠ 은둔형 청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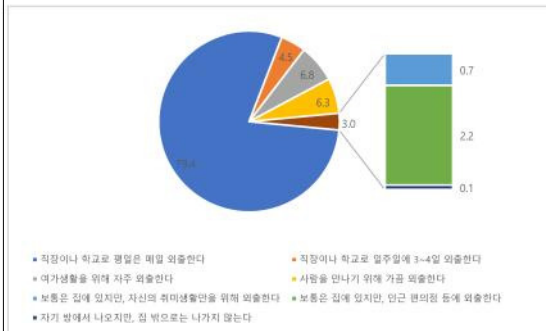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연차별 자료를 재가공하여 제시하였음(연령범위: 19세~34세).

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가?

-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18~34세)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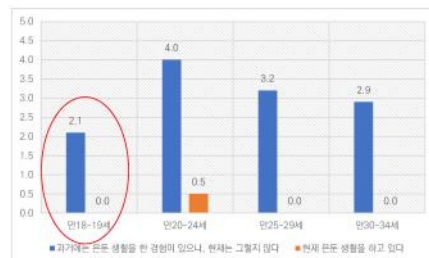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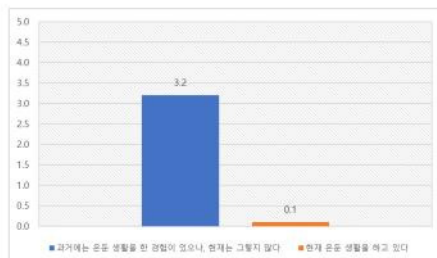


*출처: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2022)가 연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 첫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 데이터를 재분석하였음

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가?

- 스스로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비율 (현재 경험과 평생경험)

귀하는 살아오면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이나 집에서 주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거의 맺지 않은 채 생활한 경험(은둔 경험)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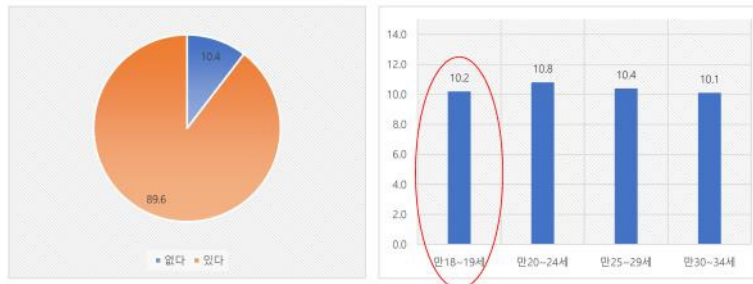


*출처: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2022)가 연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 첫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 데이터를 재분석하였음

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가?

-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비율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없음”의 비율)



*출처: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2022)가 연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 첫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 데이터를 재분석하였음

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가?

-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 (UCLA 외로움 척도 중 고립감을 나타내는 문항)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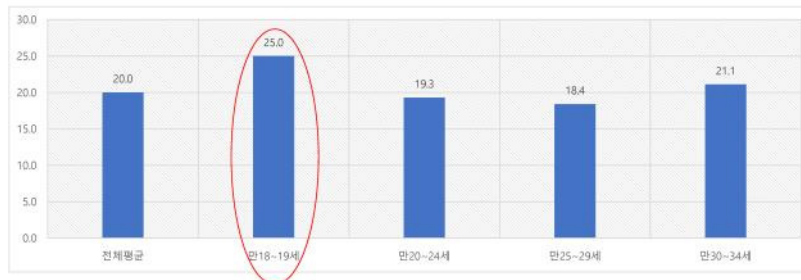


*출처: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2022)가 연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 첫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 데이터를 재분석하였음

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가?

-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의 소속감)

귀하는 현재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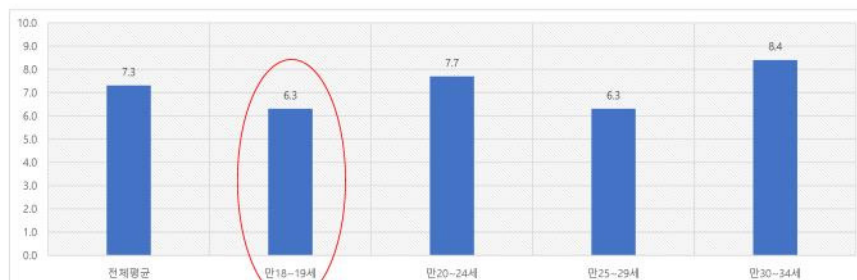


*출처: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2022)가 연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 첫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 데이터를 재분석하였음

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가?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없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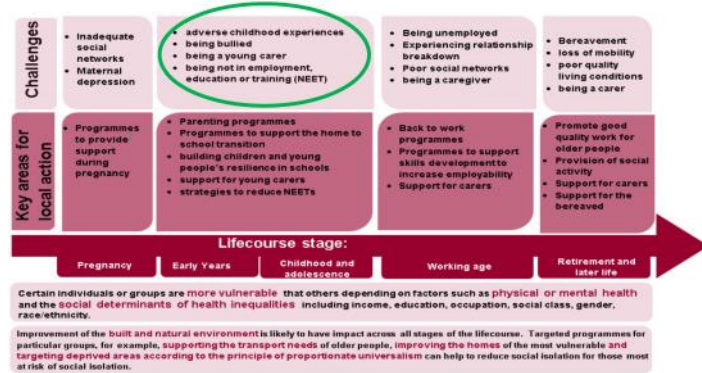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이 있으십니까?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없음"의 비율)



*출처: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2022)가 연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 첫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 데이터를 재분석하였음

사회적 고립의 원인·과정·결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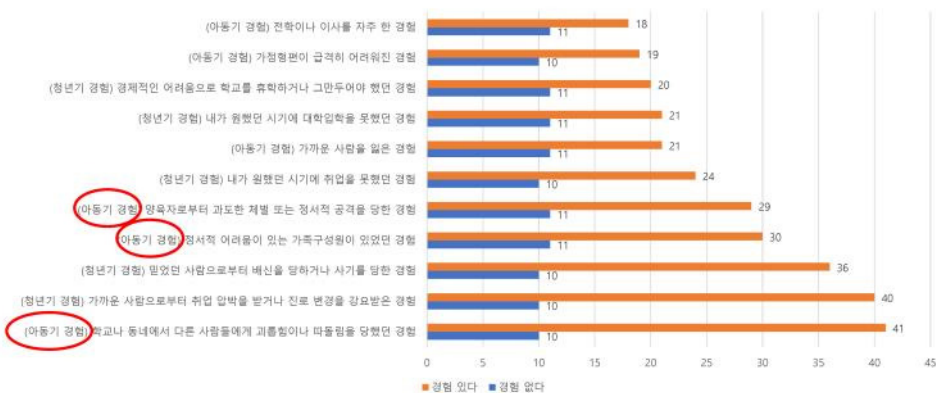
- 사회적 고립은 모든 인간의 생애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음
- 특정한 집단은 고립의 위험에 더 취약함



*출처: Durcan, D. & Bell, R.(2015). Local action on health inequalities: Reducing social isolation across the life course. London: Public Health England.

사회적 고립의 원인·과정·결과는 어떠한가?

-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발생한 부정적 경험에 따른 청년기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 차이



*출처: 유민성,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2022)가 연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 첫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상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 데이터를 재분석하였음

요약: 부정적 경험을 안고 성장하는 개인, 분절적 대응 체계가 만들어내는 사각지대

• 아동청소년기 고립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 니트의 지위 개념, 은둔의 행동 개념으로는 한계
- 관계망과 주관적 인식은 잠재적 고립 측정 가능할 것

• 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가?

- 아동청소년기 고립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 관계망이 협소하고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10대들은 다른 연령대와 유사한 규모로 분포되었을 가능성
- 소속감이 없는 10대 역시 잠재적으로 사회적 고립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 고립의 원인, 과정, 결과는 어떠한가?

- 해외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사회적 고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및 학대로 인한 고립
- 희망하는 진로로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립
-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립 등

▶ 이러한 과정은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사회적 고립은 생애주기적 과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논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 지원 근거가 무엇인가?

- 현재는 정책적 공백상태로 인한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남
-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고립 근거 마련 필요
- 아동, 청소년, 청년기 기본법제를 통한 대응
- 지자체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고립 근거 마련

•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

- 생애전반기 아동, 청소년, 청년기 지원으로 확대
- 아동청소년기에는 사회적 고립의 현상(혹은 증상)에 대한 사후적 대응보다는 예방적, 사전적 대응 필요
- 아동청소년기는 당사자와 함께 가족에 대한 지원 매우 중요
-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임시적 대응이 아닌 피해 구제에 대한 적극적, 장기적 지원으로의 전환 필요
- 생애관점에서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까지의 연결 고려

•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당사자를 이해하는 활동가의 역할
- 정부(교육-아동-청소년-청년), 지자체(아동-청소년-청년), 교육청 및 학교(Wee project), NPO의 역할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
- 일상 속에서의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임시적-단편적 운영이 아닌 안정적-장기적 서비스 제공 체계로 변환
- 학교체계를 통한 대응: Wee project로 가능?

•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 (함께 고민 필요)

- 새로운 전달체계 및 서비스 기관이 필요한가?
- 새로운 전문가와 실천적 지식이 필요한가?
- 새로운 장기적 서비스 체계와 사례관리 시스템이 필요한가?

논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 고립된 사람들을 위한 연결과 재연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법적·정책적 근거의 마련 (예방적 관점, 사후적 관점의 균형 / 장기적 관점 필요)
 - 생애전반기 고립 위기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조력 체계의 구축 (가정 안팎, 학교 안팎, 직장 안팎)
 - 서비스 전달체계, 서비스 프로그램의 정교화 필요 (제공 인력, 제공 기관, 제공 프로그램 마련)
 - 사회 통합을 위한 단계 마련 및 사회화 (재연결은 회복의 단계가 필요)
 - 아동·청소년의 고립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 개선 ▶ 고립 촉진하는 환경 개선 없이는 해결 어려움

감사합니다

msyoo@nypi.re.kr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포럼
제49회 청소년정책포럼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주제발표 2

성북구 사회적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

조미형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FGI 결과 공유

성북구 사회적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의 지원 방안 모색



2023.04.25.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조미형



연구 시작



아동청소년분과에서는

- (1) 2022년 1월부터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제로 제기되었다
- (3) 그동안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 개요

초점집단인터뷰(FGI) 진행

논의 내용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경험에 기반한 사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관에서 집중 돌봄이 필요한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집중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일시	2022년 10월 12일(수) 10시~12시 / 성북구청 11층 협업카페 2022년 10월 19일(수) 10시~12시 / 성북구청 11층 협업카페 2022년 10월 21일(금) 10시~12시 / 동소문행복한홀스쿨지역아동센터
참석자 (15명)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실무자 9명/ 초중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2명/ 성북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1명/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1명/ 성북교육복지센터 1명/성북강북교육지원청 1명

연구 개요

사회적 고립은,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지내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여기서 사회는 가정, 학교/친구, 지역사회 등을 말하며, 이러한 다양한 수준에서 소속감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상황을 말한다
 - 가정 안에서의 고립: 방임, 학대, 보호자 부재 ...
 - 학교 생활이나 또래 집단에서의 고립: 부적응, 따돌림, 괴롭힘, 폭력, 학업중단, 비행...
 -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제도의 사각지대
- 최근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들의 어린시절 부정적 경험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 아동의 문제 중심으로 접근할 때, 사안별로 지원 제도나 서비스가 이미 존재한다
- 아동의 사회적 고립 문제는 기존의 제도나 서비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나?

연구 대상의 한계: 학교를 다니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었다. 학교밖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 등은 포함하지 못했다.

2022년 12월 27일 분석 결과 공유(아동청소년분과 內)

분석 결과



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상황

- 1) 가정 안에서의 고립 → 방임, 학대
- 2) 가족의 사회로부터 고립
- 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개입 거부
- 4) 학교에서의 고립 → 따돌림/괴롭힘, 부적응
- 5)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 제도의 사각지대

2. 지원방안 모색

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상황

1) 가정 안에서 고립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전에는 가정(보호자)에 개입할 수 없나?

- ✓ 센터를 이용하는 중에 학대 신고로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례, 막을 수 없는가?
 -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만 만나고, 부모에 개입하지 못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에서 부모를 강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후에 부모나 가정에 개입할 수 있다
 - 신고가 있어야 부모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부모에 대한 개입을 의뢰할 수 없다
 - 성북구의 경우, 연간 학대 신고 건수가 600여 건에 이른다
- ✓ 신고된 아동 중에서 (아동보호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관리 요청하지 않는 사례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2) 가족의 사회로부터 고립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의 고립 #

사회적 고립 = 1인 가구?

2인 이상 가족이 고립된 사례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된다

→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의 고립은?

-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내는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의 경우, 기질적/환경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높다
 - 조부모나 친인척 등 부모의 돌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지지체계가 전무하다
 - 엄마가 야간 근무를 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에는 혼자 있게 된다
 - 엄마가 일을 하고 있어서 드림스타트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 부모의 자녀 방임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고립된 삶** 안에서 살게 된다
- 부모가 어린시절부터 양육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외로운 삶을 살았고,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현재 삶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버겁다

2) 가족의 사회로부터 고립

부모의 고립된 삶#

‘부모의 고립된 삶’을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

부모의 자녀 방임 문제에서 시작하지만,
방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

- ✓ 지원 서비스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 매일 학교에 지각하는 아이: 사회복지사가 출근길에 가정에 들러 등교를 시킨다 vs 아이가 학교에 제 시간에 갈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가정의 양육기능 강화)
- ✓ 지금의 전달체계에서는 쉽지 않다. 제도적 지원체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 ✓ 사회(기관)에서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가? 가정의 역할과 사회 지원 역할의 경계가 어디인가?

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개입 거부

아동에 대한 개입이나 지원은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가 거부하면, 서비스 지원은 중단된다. 아동은 고립될 수 있지만 개별 기관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렵다
 -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하면, 부모의 동의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 부모의 동의없이 아동에 관한 진단을 위한 검사나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없고, 지역아동센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학교에서도 부모가 거부하면 상담을 진행할 수 없고, 교육복지센터에 의뢰할 수도 없다
- ✓ 아동 권리 vs 보호자(부모) 동의
 -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4)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제도적 한계 #

법적 지원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

✓ '행정상의 자료'에 근거한 분류일 뿐, 아동의 삶을 들여다보면 외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다

- 교육복지는 법정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만을 지원한다
- 저소득층일지라도 교육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득수준이 파악되지 않아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도 알기 어렵다
- 학교의 위기학생관리위원회에서 해체된 가정의 아동을 만나도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
- 드림스타트로도 12세 이하 법정 대상 가구로 제한된다. 대상요건이 충족되어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일반 아동으로 분류되면, 드림스타트 연계도 안되고 복지관에 의뢰도 할 수 없다
- 가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방임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

4)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전달체계의 분절성 #

분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지원이 어렵다

✓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성, 서비스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돌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교육복지센터에서 담당하는 사례 아동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있는 학교로 가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문제해결여부와 상관없이 사례관리가 종결된다
- 돌봄이 초등학생에 집중되어 있어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제도적 지원의 단절과 함께 더욱 고립되기 쉬운 상황이다
- 집단활동이 추가 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개별적인 집중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 가족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해도 바로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고 대기기간(3~6개월 이상)이 길다
-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이 동시에 개입하면서 주요 문제가 해결되거나 연명 등으로 종결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2.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지원방안 모색

불리한 여건에 있는 아동을 보는 시각 #

우리는 아이를 우리의 틀로 바라보고, 그 틀 안에 맞추도록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 아동의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 만화와 웹툰에 빠져 있는 아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부모가 만화나 웹툰에 대한 이해를 갖는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라면,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다. 낮과 밤이 뒤바뀌어 지내면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문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무조건 '자야 한다'가 아니라, 이 아이와는 만화나 웹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약속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아이: 아이의 말처럼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아동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못 지키는 상황일 수도 있다

지원방안 모색

전문 전담 인력 배치#

정말 힘든 아동(고립 아동), 전문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 정말 힘든 아이, 현재 센터 상황에서는 전담하여 보살피기 어렵다

- 어린 시절 상처가 깊은 아동 중에는 주변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려 들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 정말 힘든 아동을 전담해서 보살필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

□ 형식적인 상담프로그램으로는 효과가 없다. 오히려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야기한다

- 문제행동, 심리정서적 어려움, 사회성 부족 등의 학교생활 부적응이 보이면, 첫 단계로 아동에게 상담을 권유한다
- 상담 연계하려고 하면, 아동은 '나 또 상담 받아야 해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 아동을 상담소에 보내는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아동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가 있는 장소에서 관계를 형성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원방안 모색

가족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접근#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은 '가족(보호자)의 사회적 고립'으로 접근해야 ...

□ 아동의 환경인 가정/보호자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아동 돌봄에 있어서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기관에서 부모에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을 하면서 정작 환경에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변화는 그의 환경의 변화로부터 나오게 된다

□ 서비스는 주 양육자(보호자)의 돌봄 공백을 메워 주는 역할이지, 대체하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 단기적으로 노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침에 아이를 깨워서 밥을 먹여서 등교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의 목표는 시급한 아동의 방임 상황을 해소하면서 (보호자가 자녀를 챙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서) '보호자와의 관계 형성' 정도로 설정할 수 있다
- 보호자의 임파워먼트를 목표로 설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과 기간 등을 설정하는 사례관리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담당해야 할 지는 지역사회의 논의와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방안 모색

가족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접근#2

□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소득수준에 의한 개입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외부의 지원이나 개입에 대해 거부감이 크지 않다.
- 하지만, 정부 지원 수혜 경험이 없는 경우, 외부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해 외부 지원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 일시적인 경제적·물질적 지원이 아닌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소득수준에 의한 개입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포럼
제49회 청소년정책포럼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종합토론

토론문 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포럼 토론문

오오쿠사 미노루 (사단법인 씨즈 고립청년지원팀 팀장)

토론문 2.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

김주희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부장)

토론문 3.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에 관한 토론

김형희 (성북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토론문 4. 가족관점에서의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과 대응방안

천현진 (성북구가족센터 사무국장)

토론문 5. 고립 상태여도 괜찮아

김경옥 (공간 민들레 대표)

토론문 1 >>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포럼 토론문

오오쿠사 미노루 (사단법인 씨즈 고립청년지원팀 팀장)

1. 사회적 고립의 정리

□ 원인의 문제

- 핵가족화에 의한 양육 부담 과다 및 아이의 인정 부족 · 경험 부족
- 능력주의 경쟁사회 (상대평가 학교 시스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 소통 부진 및 눈치사회
- 부모의 발달장애, 정신불안, 알코올중독, 일중독, 정의중독
... 소통을 못하는 부모, 불안한 부모, 아이를 제관하는 부모, 항상 옳은 부모
- 기초공동체(게마인샤프트)의 붕괴
- 질적 영양부족 (단백질, 철분, 나이아신, 비타민 등)
- 경제적 어려움에 인한 기회 상실
- 노동기회의 상실
- 세대간의 문화적 · 정신적 단절
- 강박관념적 도덕관에 의한 옳은 삶의 강요
- 교육학대, 정신적 학대 (아이를 항상 부정하는 부모)
- 가족간의 차별적 권력구조와 폭력적 언어 사용
- 믿을만 한 어른의 부재
- 학우로부터의 신체적 · 정신적 폭력

□ 대응의 문제

- 학교의 아이 및 가정에 대한 대응 문제
- 지역복지체계의 가정에 대한 개입 한계
- 전문적이고 효과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부족
- 전문가 부족

□ 고립의 구조

1. program - 사회적응이 어려운 인격형성(무의식)
2. hardware - 기질적특징, 본능, 선천적장애
3. software - 사회적환경
4. trigger - 직접적 고립계기 (왕따, 학교 자퇴, 우울증, 실직 등)

- 상처 받은 내면아이 형성 → 성인아이
- 복잡성 트라우마 형성
- 고통 회피, 자발적 자가격리
- 정신질환, 성격장애
- 사회적고립

2. 청소년기의 사회적고립 예방 방안 검토

□ 기존의 복지체계의 한계

- 조미형 p.16 “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을 하면서 정작 환경에 개입하지 못하고 있음. 인간의 변화는 그의 환경의 변화로부터 나오게 된다”에 크게 동의함. 사회적고립은 문제의 결과이며 그 배경에 있는 원인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을 직접 바꿀 수 없음. 인간에 대한 input를 바꾸지 않으면 output은 바뀌지 않음. 유민상 p.19에 나오는 “아동·청소년의 고립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 개선▶고립 촉진하는 환경 개선 없이는 해결 어려움”에 전적으로 동의, 아래에 청년고립지원의 경험에서 본 사회개선 방향을 제시함.
-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폭력에 한정된 현행 지원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 사회적고립은 가정의 경제상황과 거의 무관하게 발생.
- 발제에서는 방임과 가정의 사회적고립이 문제시되었지만, 방임보다도 과잉간섭과 정서적폭력이 더 강하게 아이의 정신을 파괴하는 정신적 학대가 되어 청년기에 심각한 정신질환 및 은둔으로 나타남.
- 신체적 학대뿐만 아닌 부모의 정신적 학대(폭언, 부모가 항상 옳고 아이를 부정하는 부모)에 대한 개입이 시급함.
- 사회적고립은 대부분이 가정내 문제에서 비롯되어 자녀의 사회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일으킴. 가정내에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족만으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함.
-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처럼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보편적 복지가 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 고립에 대한 지원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사, 진학시에 연계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청소년기의 고립이 그 자체를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청년기의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고립 및 정신적 문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으로 조기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정신적학대가 확인되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 적극 개입하여 부모의 정서적 케어를 지원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사회 구조의 변화 필요성

- 대안적 교육체계와 삶의 방식이 매우 한정적. 다양성 있는 교육과 노동, 삶의 방식을 만드는 사회전체의 노력이 필요함.
- 경쟁적 상대평가 학교 시스템이 아동에게 폭력적임. 습득도에 기반한 절대평가제로 전환, 청소년들에게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큰 정신적 부담을 주는 수능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가 필요함.
-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및 가정내 소통과 행복을 만들기 위해 의무교육에서 육아 및 가정생활, 소통법, 심리학 수업 도입이 필요함. 아동에게는 자신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독립적 인격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교육해야 함.
- 핵가족화와 어려운 경제상황에 인한 맞벌이로 부모가 육아에 여유가 없고, 그것을 돕는 조부모 및 친척이 주변에 없는 현실이 아이에게 정서적 케어와 존재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 부모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고립 예방의 첫단계임.
- 부모는 부모가 되는 교육도 연수기간도 없이 부모가 되어 무면허로 육아를 하는데 무지와 불안, 자신의 무의식적 습관과 자동사고로 자녀에게 비효과적 소통을 할 경우가 많음. 부모가 되기 전에 임신 단계에서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할 것이 필요함.
- 조미형 p.17 “보호자의 임파워먼트를 목표로 설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과 기간 등을 설정하는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담당해야 할지는 지역사회 논의와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에 지원의 핵심이 담겨져 있음.
- 고립·은둔 지원전문가 양성이 시급함. 특히 부모가 스스로의 부모와의 관계 및 내면 아이를 돌아보고 인정과 효과적 소통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함.
- 학교에 설치된 상담실·상담선생님이 ‘문제 발생시’에만 이용되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회의감과 수치심을 심어줌. 건강검진처럼 모든 학생이 일상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마음 상태와 부모와의 관계를 살피고 본인도 스스로의 마음을 챙기는 기회를 가지게 할 것이 바람직함.

토론문 2 >>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

김주희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사회적 고립관련 사업의 시작

본 복지관은 2016년부터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지원으로 14세~24세 빈곤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인이행기 빈곤아동·청소년 발달지원 사업」 진행한 바 있다. 기존에 청년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아니었고,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이 졸업을 하면 성인이 되었으니 서비스가 종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20세~24세의 청년들을 처음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만나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지원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청년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의 성장과정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고립의 원인을 살펴보니 대다수의 청년들이 어린시절 가족 내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거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와 부정적 경험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개입이 없이 자란 경우 성인이 되어도 그 문제들로 인해 사회에 이행하지 못하여 사회적응에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여전히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고립되고 있었다.

그 당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오후부터 저녁시간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는 꿈꾸는 복지관 공유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유놀이터를 매일 이용하지만 한 공간에 머무를 뿐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계속 주변인으로만 머물며 참여를 권유받더라도 어울리지 못하고 걸도는 청소년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방과 후 시간을 혼자 보내며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먹고, 갈 곳이 없어 복지관에 오는 이 청소년들은 스스로 혼자라 느끼고 있었다. 이들이 자의적이던, 타의적이던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이지 않을까하여 현장실무자로서 아차 싶었다. 이들은 대부분 방과후 홀로 방치되거나, 한부모·조손세대 자녀의 비중이 높았고, 방과후 학원 등을 가지 않고 같이 어울릴 친구가 없는 등 공통적인 특성이 있었다. 또한 주로 핸드폰 게임이나 SNS를 하거나, 자해 및 거친 연행을 하기도 하며, 단편적인 상호작용을 하거나 빈약한 어휘구사, 자기 생각이나 감정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의 필요성

이러한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누군가의 도움없이 성장한다면, 고립화가 지속된다면, 건

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현 사회의 큰 이슈인 사각지대 고립청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중장년 사회적 고립가구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것 같아 생애주기에 걸친 고립의 문제가 우리 사회가 더이상 간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님을 현장실무자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고립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아동청소년기때부터 사회적 고립의 시작의 고리를 끊는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 2021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사회적 고립청소년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에 내용이 공유되어 이후 아동청소년에게 ‘사회적 고립’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기존 시각을 우리 지역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변화시키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온 결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 이 포럼의 자리가 또 다른 시작의 의미로 너무 반갑게 여겨진다.

이제 첫걸음마를 떤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진행 경험과 관련 연구자료들을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과거 억압적 양육환경에 노출되거나 집단 따돌림과 같은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들이 많았으며, 청소년기에 받은 여러 스트레스들과 생리적 변화로 인해 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성인기에 들어선 이후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 청년의 사회적 고립측정 척도개발 연구에서 청년의 주관적 사회적 고립 인식수준과 시기에 대해 조사 경험결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경험한 청년 중 초등학교 시절부터 24.3%, 중고등시절부터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낀 비율이 24%로 아동청소년기에 고립감을 느낀 비율이 59%로 나타났다.¹⁾ 주제발표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해외 연구에서도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사회적 고립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내는 부모와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의 고립의 위험성이 높다는 주제발표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 촉진 요소들은 생애주기 시각에서 개인/가정/학교/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화에 대한 대응과 방안은?

분명한 것은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과 관계의 단절 등이 이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사회적 고립은 고립을 촉진하는 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은 맞는 것 같다.

먼저 우리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현상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상태를 사회적 고립이라고 개념화시키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물음이다. 주제발표문에도 사회적 고립은 모든 인

1) 조미형·최지현·이승영·최보라,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개발』, 서울: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간의 생애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아동·청소년기의 고립의 문제는 다른 연령층과는 다른 측면에서 좀더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기의 학대와 방임문제, 학교에서의 부적응, 왕따, 학교폭력, 가족 내의 문제 등 아동·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정책과 개입은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이미 기존의 지원제도나 서비스는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고립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화’ 단계에 이르는 것이지 ‘사회적 고립’이라는 개념으로 단정짓기에는 변화와 성장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게 ‘고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고 낙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고립의 취약성에 중점을 맞추거나 취약계층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고립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필요하다.

현장에서 만난 아동·청소년들은 가정 내 충분한 돌봄과 정서적 지지가 부재,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여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있었다. 경험상 현장 실무자로서 아동·청소년기의 고립화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 키는 부모와 가정이며 가족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아동·청소년기에는 일관된 대상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세계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인데 사회적 고립 청소년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부정되거나, 억압, 방임, 때로는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아이들에게 타인과 외부에 대한 불신, 부적절한 반응, 빈약한 의사소통기술 등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들을 형성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은 ‘가족(보호자)의 사회적 고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에 적극 동의하며, 제도적으로 가족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 학교,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단체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청소년의 ‘고립’의 요소에 대한 개입과 서비스 지원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접근방식으로 아동·청소년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개입방법과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문제에 대해 이제 시작단계이므로 기존 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서비스와 자원들이 우리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닿을 수 있도록 밀착지원과 통합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오늘을 계기로 아동·청소년들의 고립의 요소들을 감소시키며 마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토론문 3 >>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에 관한 토론

김형희 (성북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1. 정의

내·외부적 고립에 대한 부분에서 고립이라는 기준, 정의 등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고, 생애주기에 따른 분류로서 노인과, 청년, 아동으로 분류하여 개념과 특성을 정의하기에는 과학기술발달(물리적인 내부 공간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가능)부분의 적용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대상의 정의를 구체적인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과 이에 따른 비교군을 설정하는 것, 제도지원체계 유무, 사회관계, 국적, 미혼모가정 등에서 제도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나 데이터 조차 없는 대상이 추가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빠르면 영유아기 시기부터 공감, 소통, 사회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발달이 어려운 환경이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상황, 사람, 소속된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부정적 감정의 내재화가 심화되고 적절한 해결 경험이 부재한 상황이 많습니다.

2. 대응

모든 사회복지분야의 서비스와 제공 유형들이 세분화 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고 서비스만을 조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외부 기관 간 협업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 가시성 높은 대상을 정의하여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상별, 대상이 속한 가족, 나아가 (물리적)소속지역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개입을 모색하고 지역 복지 자원의 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문 4 >> 가족관점에서의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과 대응방안

천현진 (성북구가족센터 사무국장)

아동청소년의 은둔, 사회적 고립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부분은 센터에서 만나는 다양한 가정들에서 볼 수 있다. 가정 내 부모의 방임, 상호작용 부족, 소통 빈곤 등이 정도의 차이일 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일 것이다.

하지만 고립 정도가 심한 가정은 부모 역시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삶’에 있고, 아이도 그 안에서 성장하며 고립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

가정 내 고립 환경 안에서 가족 간에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이 깊어지기 전에 부모요인 및 가정환경의 변화를 돕는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언젠가 가족 문제로 개인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은 어머니가 센터에 연락하여,

“방에서 나오지 않던 막내가 기술 공부를 하여 실기 합격을 했어요”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한 적이 있다. 아이들의 고립을 놓고 누구 탓인지, 가족 안에서 서로 탓하며 싸움이 있었기에 센터에서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축하 인사를 전했더니, 어머니 말씀이,

“상담 받은 덕분에 제가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였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과, 변하려 노력하는 보호자의 애정이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보호자에게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주 큰 힘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발표에서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지?” 질문에 “없음” 비율이 약 10%에 달하는 점을 보더라도 들어주는 사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만18~19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이 전체 평균 또는 만30~34세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도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는 생애주기 단계에서 고립에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장 변화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 생각한다.

이처럼 가정환경 내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관계의 물꼬를 트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성장을 돕는 선순환 가족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족센터, 아동청소년 돌봄시설, 학교, 복지기관, 공공체계 등 가정을 둘러싼 지역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들의 고립의 시작에 대해 어느 시점에 알게 되어도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몇몇 기관의 힘만으로 긍정적 가족체계를 이끌어내는데 역부족일 수 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 내 유기적인 온가족 부모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공체제, 법정대상 등 명확한 기준에 따른 고립가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임과 정서적 분절, 유리된 가족관계 등에 대해 여러 기관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민간체계의 보완, 구축이 매우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사각지대 가정들에 공식적인 자원 연계와 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지원 : 부모교육과 상담, 돌봄 서비스,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함으로써 약한 관계라도 지역 기관들과의 연결 끈을 잇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제기되는, 가족센터 상담대기 문제는 별도 상담예산과 자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 노력하고자 하며, 사례전담인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희망드림 사업 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고립의 징후에 관심을 갖고 빠르게 발굴, 지원하여 적절한 타이밍을 넘기지 않는 체계가 갖춰진다면, 미취학 또는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부모요인의 작은 변화가 아이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변화는 더디지만 사춘기 가족갈등을 낮추고 아이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현대, 따뜻한 맛이, 긍정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돕는 것이 우리의 작은 시작이 아닐까. 가족 서비스, 복지서비스가 가족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가족 구성원간의 연결,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결 끈을 연속적으로 잇고 다듬어 살리는 일에 힘을 모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가정을 둘러싼 온가족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실질적,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토론문 5 >> 고립 상태여도 괜찮아

김경옥 (공간 민들레 대표)

‘고립화’라는 현상과 마주하며

청소년과 만나온 지 20년이 좀 넘는다. “교육=학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일종의 연구모임으로서의 출판사인 민들레를 찾아온 청소년을 만난 게 그 계기였다. ‘출판사를 찾아온’ 청소년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에든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절실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그 출판사가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비상구 같은 거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실제로 민들레출판사가 그 정도의 역량이나 자격을 갖춘 곳이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찾았던 건, 당시 청소년의 목마름이나 절실한 문제의식을 해소할 곳이 전무했던 탓이다. 그 무렵 민들레를 찾아온 청소년은 거의가 학교교육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시험 준비하는 학교 공부에 회의가 들고, 숨 막히는 학교생활이 힘들어 탈출하고 싶지만 학교를 나온다는 것은 곧 문제 청소년이 되는 시대여서 자기 자신이 문제라며 자학하거나 부정하는 상태였다. 그 당시 아이들은 학교와도 불화했지만 가족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학교를 힘들어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그 상황을 수용하거나 공감하기보다 아이를 나무라고 억지로라도 학교에 가도록 강권하곤 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쩌다 눈에 띈 책에서 발견한 ‘네 잘못이 아니고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구절이 자신을 구해줄 동아줄로 여겨진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출판사를 찾아오는 청소년은 그 후로도 몇 년 이어졌는데 그들과는 체계적인 상담이나 학습과정은 없었지만 때때로 벌어지는 토론회나 대화로 나름의 정리를 하며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나름의 정리는 대충 이런 것이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사회구조와 문화에서 비롯되는지, 그 부조리나 결함과 맞닥뜨린 개인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각자에게 맞는 솔루션을 혼자 독방에서 찾지 말고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나 도움을 줄 어른들과 같이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소년사랑방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안방 같은 ‘공간민들레’라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도시형 대안학교로 만든 것이 2006년이였다.

고립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자리에서 20여 년 전 한 출판사를 찾아온 청소년의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야말로 격세지감 때문이다. 당시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일본의 사례를 공부하며 일본의 실천가나 활동단체를 만나기도 했는데, <부등교 아이들을 위한 부모 모임>이나 <도쿄슈레> 같은 곳이었다. 그때 일본의 활동가나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 히키코모리, 우리 식 말로 하면 은둔형 외톨이었다. 도무지 집밖으로 안(못) 나가고 방에 틀어박혀 꼼짝 않고 있

는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한국 상황은 어떤지 물었다. 그때 나는 대충 이렇게 답했다. “한국에는 히키코모리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집을 좋아하지 않고 집에 있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는 가출 청소년이 문제지 집에 있는 것은 고민거리도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일본의 가정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이때 내가 간과한 것은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고립화’였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아동청소년은 물리적으로는 집이라는 가족 공간 안에 있어 다소 안전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관계 면에서는 사회나 가족과 고립되어 있어 대단히 위험한 상태였던 셈이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20년 전 일본의 부모나 활동가들이 던졌던 그 질문을 지금 우리들이 풀어야 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 아동청소년의 고립화는 분명한 현상이고 그 문제를 개인이나 각 가정을 넘어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고립 상태여도 괜찮아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 홍대역 2번 출구 뒷골목에 숨어 있는 민들레출판사를 물어 물어 찾아오던 20여 년 전의 청소년을 10여 년 전부터는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거의가 부모가 먼저 민들레 문을 두드리고 있고, 아이들도 부모 손에 이끌려 민들레를 찾는다. 그렇게 찾아온 청소년이 스스로 민들레를 선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이제는 일주일, 한 달, 서너 달이 걸리기도 한다.

‘봄(가명)’은 고1 나이의 여학생이다. 초등 때부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도 있고 했는데 5학년 때 어떤 일을 계기로 학교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덜컥 겁이 난 보호자는 백방으로 물색해 아이를 미국의 학교로 보냈다. 학교를 안 다니는 상태를 인정하지 못했던 셈이다. 왜 안(못) 가려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학교를 안 가는 현상만 해결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 착각한 것이다.

다들 자기에게 관심 없고 제 할 일만 하는, 초 6학년 아이가 느끼기에도 나름 편안하고 합리적인 미국의 학교에서 그냥저냥 지냈던 듯하다. 하지만 아이는 그곳에서 그 나이 때에 경험해야 하는 관계 맺기나 갈등 해소하기 등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중2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한국의 학교는 아이에게 거의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이었고, 2학기부터 학교를 거부하고 자기 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상태가 되었다.

올해 2월에 아이의 어머니는 지인 추천으로 민들레를 찾았고, 그 이튿날 아이와 같이 만났다. 봄이는 그림 그리기를 즐기고 혼자서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하고 SNS로 바깥 세상을 만나기도 한다. 나름 편안하고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한숨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도 들고 이래선 안 되는 거지 하는 불안도 올라온다고

했다. 그런 아이가 느끼기에도 민들레 공간은 따뜻해서 이곳에서 ‘고립화’를 풀어보기로 작정했다. 하루 나오고 일주일 쉬고 그러다 또 하루 나오고... 여행 기간엔 쉬고... 애써 고립화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힘든 봄이, 민들레는 어떻게 봄이를 도울 수 있을지 새로운 질문을 갖게 되었다. 고립 상태는 나쁜 것일까?

‘여름(가명)’은 중1 나이의 남학생이다.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만 지낸 지 일 년 정도 되었다.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던 부모는 민들레에서 발간하는 교육잡지 <민들레> 구독자였다. 한창 친구들과 뛰어 놀아야 할 사내아이가 집에 틀어박혀 아무 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게 속상하지만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혼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주기도 하고 책을 권하기도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하루하루였다. 그러다 중학생이 되어 입학식날 하루가더니 학교를 안 가겠다고 했다. 어떡하지 하던 때 중학교 담임이 찾아왔다. 의무교육 대상이라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조사차 온 것이었다. 담임은 어딘가 소속되어 뭐든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학교에 나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다. 엄마는 그 핑계 삼아 아이를 외부 어디로든 연결하고 싶었던 터라 아이에게 민들레를 권했다. 두 살 위 동네 형아가 민들레를 다니고 있어 민들레에 관한 정보를 얻기도 했다.

엄마 손에 이끌려 내키지 않는 얼굴로 여름이는 3월 말에 민들레를 찾아왔다. 면담을 하며 집에서 뭐하고 지내는지를 물었더니 음악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고 했다. 아버지에게 작곡을 배우고 있고 그림은 유튜브를 보며 하고 있다고 했다. 더 잘하려면 좀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데 엄마가 사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살짝 드러내기도 했다. 좋은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 혼자 있는 게 그리 힘들지도 슬프지도 않아 보였다. 아이는 혼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고 했지만 엄마의 관찰 결과는 달랐다. 무기력하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릴 때만 조금 반짝하고, 컴퓨터를 사주면 게임을 더 본격적으로 할 거라는 걱정이 컸다. 민들레를 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소년을 보고는 조금증도 생겼다. 담임의 말이 걸려서 학교에 가는 건 싫으니 민들레라도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살짝 든 아이와 외부 세계와 연결되기를 바라는 엄마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협상을 끝내고 민들레를 다니기로 했다. 그렇게 맘을 먹고도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아 엄마는 걱정스런 문자를 보내곤 했다. 여름이의 고립 상태는 나쁜 것일까?

봄이와 여름이를 만나고 우리가 던진 질문은 ‘고립 상태는 나쁜 것일까’였다. 고립 상태 그 자체가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나쁜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메시지는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이나 불안감 두려움 등에 시달리게 하여 오히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고립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였다. 고립화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 당사자는 누구보다 그 상태를 불안해하고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그럴 여력이 없다. 또는 연결될 외부 세계를 만나지 못했거나, 발제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가 사회와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다. 고립을 벗어나고 싶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상태로 아예 딱

딱하게 굳어버린다. 그럼에도 본인 안에는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불씨가 희미하게라도 살아있을 것이다. 우리의 솔루션은 어떻게 꺼져가는 희미한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까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 열쇳말은 “고립 상태여도 괜찮아!”였다.

봄이와 여름이는 여전히 민들레를 잘 나오지 못한다. 나는 지금까지 궁리해 얻은 민들레의 생각을 보호자들과 공유하고, 봄이와 괜찮다면 가끔 줌으로 만나 요즘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도와줄 건 없는지 등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일주일에 두 번 전체 교사와 봄이가 줌으로 만나고 또 한 번은 봄이가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교사와 만나기로 했다. 자신의 상태를 부정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어떤 긍정적 감각이 생겨 그것을 딛고 민들레와 만나기를 희망하며 그 작업을 차근차근 해보려고 한다.

여름이는 머뭇거리다 하루 나와서 오전 활동을 하고 같이 점심도 먹고는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것도 꽤 피곤했는지 그 다음날은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고 빠지더니 그 다음날은 와서 오전 활동을 하고 점심을 먹고 교사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고지하고 집으로 갔다.

줌으로든 잠깐 얼굴을 보든, 봄이와 여름이가 경험한 정글 같은 곳이 아닌 다른 세상을 그 아이들의 상태에 맞춰 접속시켜주기를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한다. 그 이유를 막론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그걸 딛고 다음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지금은 줌으로 만나거나 아이의 상태를 긍정해주는 메시지. 또 그 무언가를 찾아 최선을 다해 봄이와 여름이를 만나려고 한다. 우리보다는 그 아이들에게 남아 있을 ‘삶의 힘’에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이들을 만난다.

MEMO

MEMO

MEMO

MEMO

MEMO

포럼23-01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포럼
제49회 청소년정책포럼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인 쇄 2023년 4월 25일

발 행 2023년 4월 25일

발행처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7층 복지정책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6/7층)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자료집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